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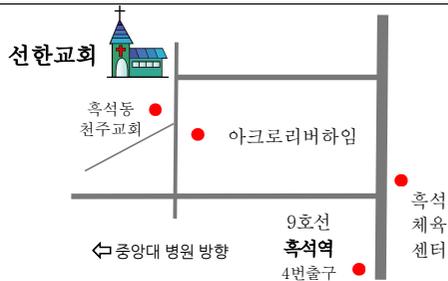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주 일 예 배 | 1부 주일 오전 9:30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 유 아 부 |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
| 중 국 어 예 배 | 주일 오후 4:00 | 청 소 년 부 |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7:30 | 청 년 부 |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
| 금 요 기 도 회 | 금요일 저녁 8:30 | 영 어 예 배 |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월삭새벽예배 6:00 | |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임목사 임 춘 배 | 국 내 선 교 사 |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
| | 교육목사 권 인 혁 | 해 외 선 교 사 |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
| | 전임전도사 김진만 | 협 력 교 회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은 퇴 장 로 | 고 상 돈, 김 대 희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 박 희 태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장 로 | 박 영 근 (집사장) | 관 리 장 로 | 손 석 규 |
| | 유 신 응, 조 윤 익 | 500/50 교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조 계 승, 윤 호 중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 기 원 | 인도자 |
| 찬 양 과 경 배 | 32장 (통일찬송가 48) |
| 교 독 문 | 교독문 34 (시편 81편) |
| 찬 양 과 경 배 |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 |
| 대 표 기 도 | 윤호중 장로 |
| 말 씬 봉 독 | 마태복음 7장 1~6절 |
| 설 교 | 비판하지 말라 (임춘배 목사) |
| 환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파 송 의 노 래 | 그렇게 살아가리 |
| 축 도 | 임춘배 목사 |
| 성 도 의 교 제 | 다함께 |

**수 요
예 배**

네 썸으로 복되게 하라 (잠5:1-23)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 9월 20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기도회는 영상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는 분들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창세기42장~출애굽기 40장]
4. 경건서적읽기 :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3. 서면제직회 결과

- 일시 : 8월 24일 서면 제직회 작성
안건 :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신청건
결과 : 총제직인원 92명
참여인원 89명 (불참 사유 : 해외 거주자 및 질병)
제출인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위 회의 내용을 가지고 새마을금고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이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기쁨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이 때를 지나가고, 승리하기를

찬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통 359)

본문 : 아모스 1장 1~15절

말씀 : 아모스는 몇 가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우선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통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예언서를 남긴 첫 번째 예언자란 뜻입니다. 그의 활동영역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출신지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왕족이나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18km 떨어진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살았습니다.(1절, 7장 14~15절)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불러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모스가 예언자로 나선 시기에 에브라임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중반에 40여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경제·정치적으로 번영기를 이룹니다. 북쪽에서는 앗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건 한 세기가 지난 뒤입니다. 이런 시절에 남유다의 목자 출신 예언자가 나타나 패망을 예언했으니, 자신감에 차 있던 정치·종교 권력자들이 귀담아들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모스는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면,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50km나 떨어져 있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마른다"(2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웃한 민족을 향해 선포된 심판 예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 예언의 대상이 된 족속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늘 이웃으로 산 다메섹(아람)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형제의 연을 맺은 두로와 에돔, 암몬입니다. 이들은 그 정도가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인 '서너 가지' 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죄목은 무자비한 살육과 인신매매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다투면서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사로잡은 자는 노예로 삼았다가 여지없이 팔아넘겼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풍조로 살아가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떨거나 뉘우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움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를 박해하는 죄를 더합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묵묵히 예언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토머스 머튼이 번역한 '장자'에 나오는 '도(道)의 사람'이 아모스를 설명한 듯해 여기 옮겨봅니다.

"도 안에서 걸림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어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남에게 의존함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홀로 걸어감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따르는 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지위와 보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불명예와 부끄러움에 가로막히지도 않는다."

제목

비판하지 말라 (마7:1-6)

서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론

1. 비판에 대한 가르침

- (1) 내가 재판관이 될수 없다(1절).
- (2)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2절).
- (3)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다른 사람 눈의 티를 뺄수 있다(4,5절).
- (4)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6절)는 말씀의 의미는?

2. 교훈

- (1) 누가 재판관인가? 하나님? 나?
- (2)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 (3) 바른 분별력과 사랑의 동기로 행하고 있는가?

결론

비판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 | |
|--------|---|
| 찬양 |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 본문 | 예레미야 31:31~40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신다.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달리 백성들의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이다. (31-33절)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속에서 늘 새롭게 생각나고 새로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4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새언약이라고 볼릴 상황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불완전으로 얼룩졌고 유다 중심주의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십자가 죽음과 피흘림이 온 인류를 위해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하시므로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소식은 당시 포로된 백성이 다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 이를 잘 아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킨다. (35-37절)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첫창조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사역도 당연히 행할 수 있고 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이 약속의 완벽한 성취는 아니지만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38-40절) |
| 묵상질문 | 1.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
| 오늘의 기도 | |

| | |
|------------|--|
| 찬양과 기도 |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 365/통 484)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우리는 종교에 거부감이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은 성경 대신 이성, 자연 과학의 성과나 가능성을 더 신뢰하며 성경을 신화로 치부하는 것을 지성인답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 초기, 샤프트르르 주교좌성당 학교에 베렌가리우스(Berengarius)와 란프랑쿠스(Lanfrancus)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증론은 매우 뛰어난 수준 높은 질문으로 선생들조차 당황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란프랑쿠스는 신을 목상하며 평생 살겠다고 뜻을 정해 베네딕트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반면 베렌가리우스는 변증론 공부를 계속해 최고의 명성을 얻고, 이를 신학에 적용합니다. 그는 성찬례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분석해 난해한 질문을 던졌고, 많은 이가 그의 질문이 듣기 불편했음에도 그의 뛰어난 변증에 논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도사 란프랑쿠스가 옛 친구를 비판하며 논쟁에 가담합니다. 그가 변증론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수도원장들의 개입으로 란프랑쿠스의 승리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믿어서 말씀이 이해되는지, 아니면 이해가 되어서 믿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경험이 있나요?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
| 말씀 나누기 | 예레미야 32:16~35 |
| 묵상포인트 |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기업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파나 이방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뿔의 밭을 사서 기업을 잇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의 상속권은 우선적으로 아들에게 돌아가지만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에게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뿔의 땅을 사라고 명하시고,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밭을 구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비쳤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밭을 사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밭을 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관찰과 묵상 | 유다와 예루살렘성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기도했나요?(24~25절) |
| 적용하기 |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
| 함께 기도하기 | 하나님은 저의 절망과 한숨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 |
| 나의 기도문 | |
| 기도 (중보기도) | |

| | |
|--------|--|
| 찬양 |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는지 |
| 본문 | 예레미야 33:1~13 |
| | <p>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1절) 밖에서는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에 저항하지만 역부족이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4-5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같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적인 현장이라는 것이다.</p> <p>우리는 부지런히 어떤 일을 기획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나 강의를 하는 등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막혀 꼼짝할 수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듯 절망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다.</p> <p>실제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심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응답을 받은 바 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회복될 이스라엘의 상세한 모습을 보고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병을 고침받고 죄악을 용서받을 것이며 풍성한 복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6-9절)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거리는 기뻐 즐거워하는 소리로 넘쳐날 것이며, 무너졌던 성전에서는 감사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목자들은 평안히 양떼를 칠 것이다. (10-13절)</p> |
| 묵상질문 | 1. 이땅의 죄악을 보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 오늘의 기도 | |

| | |
|--------|---|
| 찬양 |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 본문 | 예레미야 32:1~15 |
| | <p>시드기야 왕 10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 유다는 몰락 직전에 있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 동안에 전해왔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세지를 혼신을 다해 전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왕과 권력자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목숨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었다. 영적으로는 바벨론 지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는 것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는 길이었다. 하지만 왕과 권력자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헛된 종교적 믿음, 하나님 신앙으로 포장된 탐욕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니 예레미야의 메세지는 더욱 거슬렸고 그를 궁중 시위대 뜰에 가두어버린 것이다. (1-5절)</p> <p>이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요청한다. 하나멜이 자신의 밭을 팔려고 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실제로 하나멜이 밭을 저서 땅을 팔아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유다의 몰락을 예고하고 미리 땅을 처분하려고 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땅을 사달라는 요청을 감옥에 갇혀있어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은 십칠 세겔을 주고 산다.(6-9절) 살 뿐 아니라 그 매매증서를 오랫동안 보관하여 증거를 삼고자 한다. (10-15절)</p> |
| 묵상질문 | 1.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
| 오늘의 기도 | |

| | |
|----|----------------------|
| 찬양 | 찬송가 270장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
| 본문 | 예레미야 32:16~35 |

예레미야는 궁전 시위대 뜰에 갇혀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다. 비록 그가 갇힌 상황에서도 사촌 하나멜의 땅을 구매하며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시기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력과 전 재산을 바쳐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과연 이것이 멸망의 재앙 앞에 놓인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위로가 될 것인가? 예레미야는 백성의 미래와 선지자로서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 앞에서 슬픔의 탄식을 담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 (16-17절)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간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으며 그 사랑이 무궁한 분이시다.(17-18절) 이 하나님이 그의 크신 지혜와 공의로움 가운데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19-22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방인처럼 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지금 이 심판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3-26절)

예레미야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27절) 하나님은 물론 지금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훼파하며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흠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한 죄와 행한 불순종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1절 정도로 짧게 요약한 반면 (23절) 하나님은 6절에 걸쳐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죄악을 행해왔는지를 설명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하고 사무쳤음을 보여준다.

목상질문 1.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의
기도

| | |
|----|----------------------|
| 찬양 |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 본문 | 예레미야 32:36~44 |

시드기야의 감옥에 갇혀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던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심판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지 마지막 호소를 한다. 그가 이러한 호소를 한 근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다. (17절) 그러자 하나님도 바로 이 당신의 전능하심에 근거해서(27절)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임을 역설한 바 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동일한 전능하신 약속으로 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37-38절)

하지만 이러한 귀환은 단지 이전 상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우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39절) 이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자했던 옛이스라엘의 고질병을 생각할 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다. (40절) 이는 31장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이 돌에 새기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거듭해서 이를 깨뜨림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 또한 이스라엘의 언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겠다고 약속하신다. (41절)

목상질문 1.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기도